

주가	환율	금리
+0.30	+5.70	+0.04
1,390.73 (코스피지수)	926.10원 (원/달러)	4.78%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0.03	(+1.64)
다우(8일)	12,307.49	(+29.08)
나스닥(8일)	2,437.36	(+9.67)
닛케이	16,527.99	(+110.17)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76엔	(+0.46)
유로 달러 환율	1.3154달러	(+0.04)
3년만기 회사채	5.14%	(+0.04)
클레리	4.45%	(-0.01)

중부세 신고 길잡이용 CD보급

광주국세청, 15일까지 납부편 세액 3% 공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은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마감을 앞두고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2006년 개정판 금급해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동영상 강좌를 CD로 제작, 산하 세무서에 보급했다.

모두 2시간30분 분량의 이 CD는 개정 중부세법에 대한 해설과 계산사례,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과 전산매체제출자료 검증프로그램, 신고서식, 문답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광주지방청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중부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의 3% 공제혜택이 있어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윈터 팜스테이' 시연회

18일 보성서 짚풀공예 등 개선안 마련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겨울철 도시민들의 팜스테이 마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오는 18일 보성군 웅치면 삼수 팜스테이 마을에서 전남 30개 팜스테이 마을대표와 어린이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윈터 팜스테이(winter-farmstay) 운영 프로그램 발표 및 시연회'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염색체험과 놀이소품 만들기, 짚풀공예, 밀랍 양초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어린이 35명을 초청, 두부 만들기 등 연 만들기 등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된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올 겨울방학을 맞아 도내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윈터-팜스테이 마을' 안내장을 제작, 초등학교와 유치원등에 배포하는 등 팜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채용 또 물의

이번엔 장기근속자 자녀 등 우대원칙 명시안해
광주공장 10명 뽑는데 4,000여명 들러리 신세

지난해 생산직 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아자동차가 최근 퇴직자 자연 감소인원을 채용하면서 정확한 채용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1차 서류전형 탈락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광주공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자 자연감소인원을 확충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생산직 사원공고를 냈다.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원서를 접수한 결과 광주지역 근무를 희망한 지

원자가 4천여명에 달해 400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기아차는 지난주 1차 서류전형에 이어 이번 주 면접과 적성검사를 거친 뒤 10명의 합격자를 선정, 이달말께 광주공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서류 탈락자들은 "기아차 채용공고를 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장기근속자 자녀 등 우선 채용대상자' 등에 관한 '우대원칙'을 명기하지 않아

들러리 신세로 전락한 기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지원자의 자격이 동일한 조건일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 비정규직이나 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해 우선 채용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만 29세 이하, 고졸의 군대를 나온 남자라는 규정을 모든 지원자에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기아차는 지난 2000년 IMF 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사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노조와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신규채용 때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감원자나 사내 비정규직, 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등의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특히 스포티지 라인 증설작업과 함께 지난해 1천여명의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자, 노사가 투

명한 채용과정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지난해 채용 비리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으면서도 이번 채용에서 또 다시 투명하지 못한 부분으로 비난을 사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모든 부분에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산타빌리지'에서 추억을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들이 1층 정문에 마련된 '산타빌리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산타마을을 형상화한 '산타빌리지'를 오는 24일까지 운영하며 주말에는 즉석사진 촬영서비스도 제공한다. /위경량기자 jrwi@kwangju.co.kr

불안한 미래... 씹씹이가 줄어든다

미래에 대한 불안,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씹씹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과 올해(1·4~3·4분기) 2인 이상 도시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평균 소비성향을 비교해보면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감소했다.

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조세·사회보험료·타가구 송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20대의 월평균 처분 가능소득은 2005년 231만원에서 올해 1·4~3·4 분기에는 241만원으로 10만원 가량 늘었으나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173만

집값 상승 등 여파 60대 제외 전 연령층 소비지출 줄어

원에서 176만원으로 3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대의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해 74.89%에서 올해는 73.02%로 1.87%포인트 감소했다.

소비활동의 주력부대인 40대의 월평균 처분 가능소득은 2005년 284만원에서 올해 1·4~3·4분기에는 296만원으로 12만원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 월평균 소비지출은 236만원에서 올해는 245만원으로 9만원 가량 늘어나 평균 소비성향은

2005년 83.09%에서 올해 1·4~3·4분기에는 82.77%로 0.32%포인트 하락했다.

50대의 월평균 처분 가능소득은 2005년 278만원에서 올해는 289만원으로 12만원 늘었고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216만원에서 223만원으로 7만원 증가, 평균 소비성향은 77.69%에서 올해는 77.16%로 0.5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0대의 월평균 처분 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은 2005년 각각 191만원에서 올해는 188만원으로 감소하고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152만원에서 156만원으로 늘어나 평균 소비성향은 79.58%에서 82.97%로 3.39%포인트 상승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내년 취업 최악

기업들 채용 소극적... 일자리 증가 28만개 그쳐

내년 취업자 증가 수가 25만~28만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일자리 사정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둔화에 이어 비정규직 보호법안 국회 통과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취업에 예외가 우려된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 예상치 30만명보다 줄어든 28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에 취업자 증가 수가 26만명에 머무르겠지만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세가 빨라져 취업자 증가 수가

31만명 정도에 달해 고용사정이 내년 하반기에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 경기 침체 요인이 있고 고용 기여도가 큰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고용시장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년 취업자 증가 수도 올해보다 줄어든 25만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경기 둔화로 영세 자영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용시장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 10원짜리 동전 작고 가벼워진다

18일부터 시중 유통

크기가 줄어들고 소재도 구리를 섞은 알루미늄으로 바뀐 새 10원짜리 주화가 오는 18일 발행된다.

한국은행은 지름이 18.0mm로 현재(22.86mm)보다 4.86mm 작고 무게는 1.2g으로 현재(4.06g)보다 훨씬 가벼워진 새 10원짜리 동전을 18일부터 발행, 각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재는 기존의 황동(구리 65%, 아연 35%)에서 구리를 섞은 알루미늄으로 바뀌며, 색상도 황금색에서 붉은색으로 변모한다. 새 동전의 문자 및 숫자의 글자체는 새 은행권에



새로 발행되는 새 10원 동전(오른쪽). 재질은 구리를 섞은 알루미늄으로 지름과 무게는 현재 동전(왼쪽)보다 훨씬 작고 가볍다.

적용된 글자체가 사용된다. 한은은 새 동전의 소재가치 및 제조단가가 현재 동전보다 1개당 20원 가량이 낮아져 연간 약 4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SONY 소니 프리미엄 Real Full HD TV 출시!!

최고의 영상감각 소니가 자랑하는

소니의 뛰어난 DLSO
-이제서야 CCD-출력
-신속한 1000Hz 고속-모션

가장 인기 있는 Full HD TV

KDL-46X9000

KDL-46X9000

KDL-46X9000

VIP전문 propose 한국 3대지사 해외 5대지사 전문결혼회사

대한민국 최대의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

전문직종사자, 기업근로자, 농·어민, 공무원 등

★ 국내결혼 : 초혼 재혼 신혼 커플맞춤식 매점식당
★ 국제결혼 :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이제부터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잡아주세요

주최: 결혼정보회사 웨딩스쿨

(주) 웨딩스쿨 대표이사

☎ 350-6147-010-3545-4491